

SK의 New Capitalism 전략



박우규 소장

2012. 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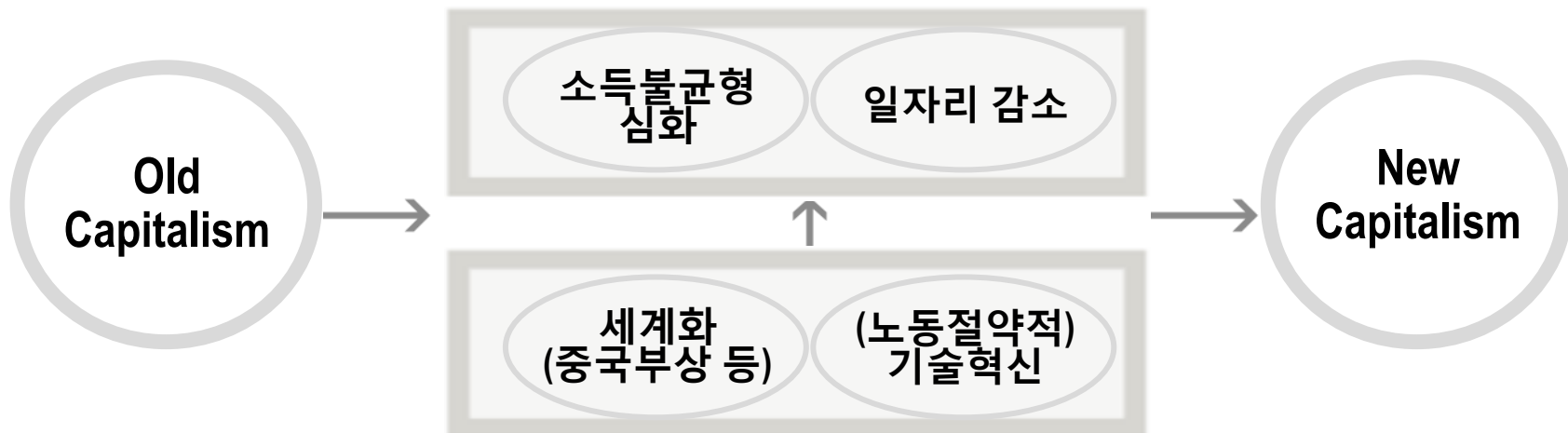
Part I: 한국에서의 New Capitalism

- 1 New Capitalism(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배경: 일자리 부족
- 2 New Capitalism의 관건은 '기업가 육성'

1

New Capitalism(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배경: 일자리 부족

-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 소득불균형과 일자리 부족
 - 소득불균형과 실업문제를 저금리와 부동산 버블로 해결하려는 시도
: 일정 기간 성과 이후 '자산버블 팽창과 붕괴'로 이어짐
- 금융위기→ 저성장 장기화→ New Capitalism 요구
 - Arab spring, Occupy Wall Street, 경제민주화 (economic democratization) 등
 - New Capitalism의 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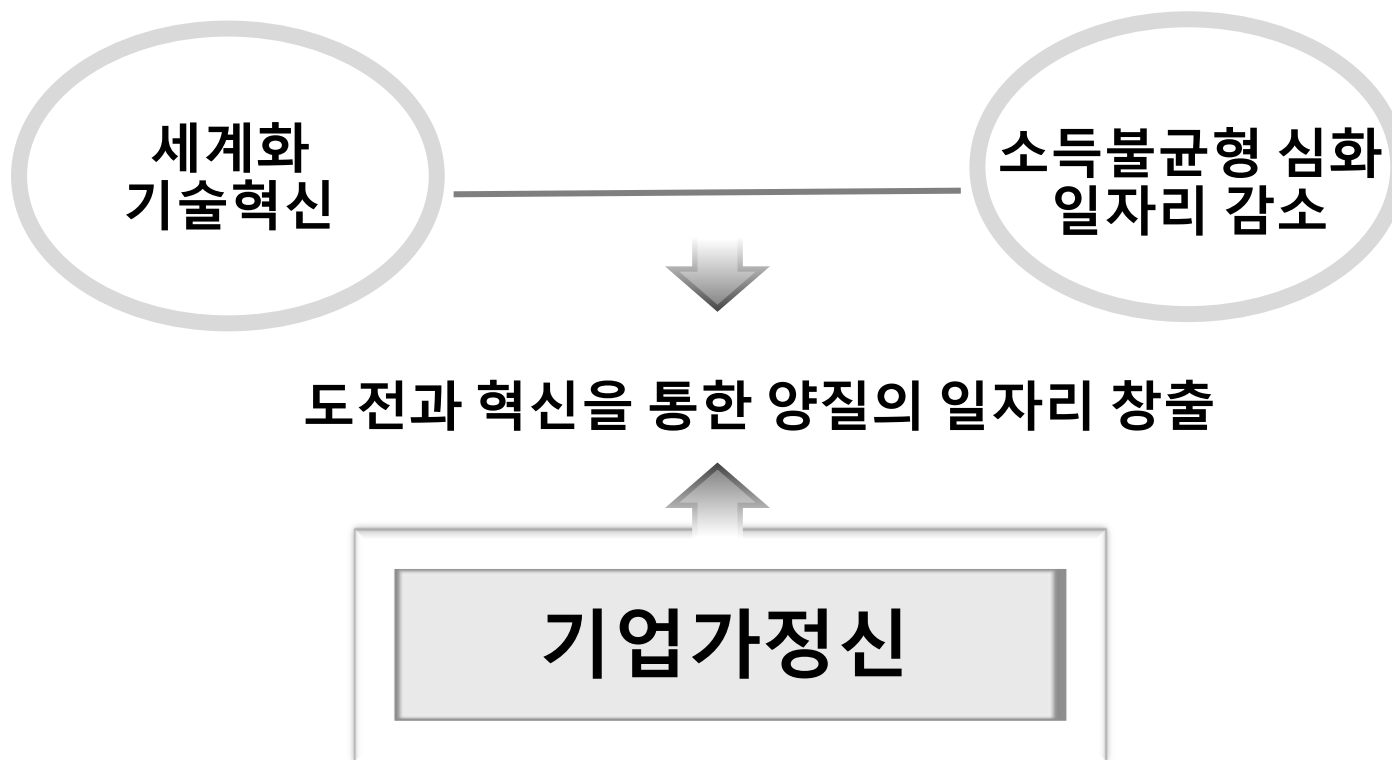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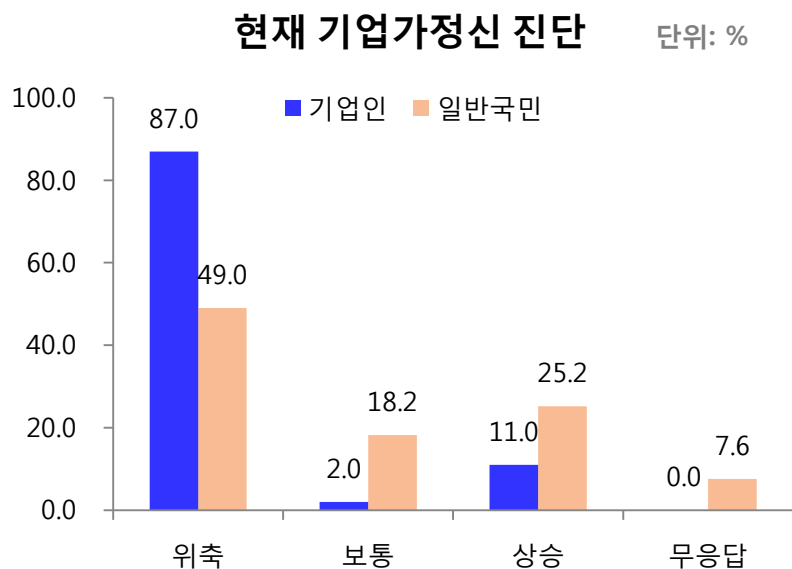
New Capitalism의 성공요건: '기업가 육성'

- 일자리 창출 없이는, 현재의 저성장과 정부부채 악화를 해결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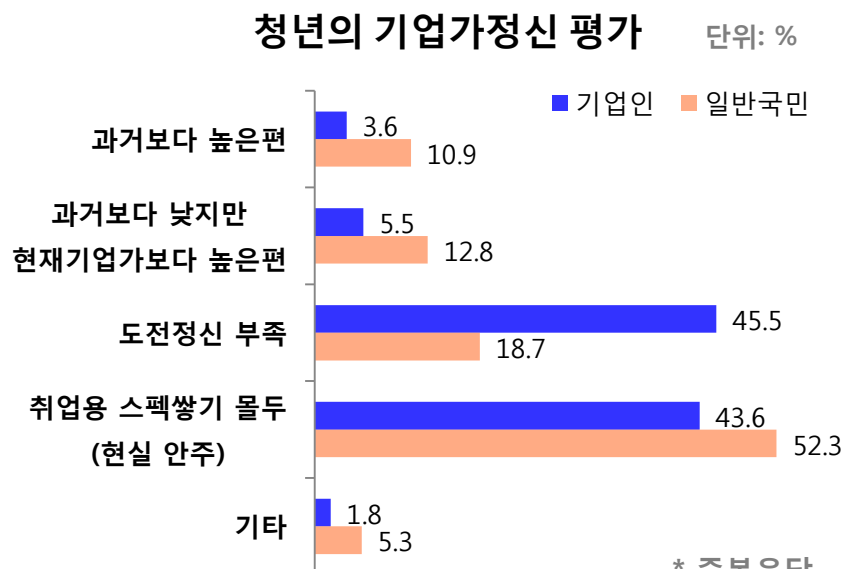
- 일자리 부족 → Tax revenue 감소, 복지지출 확대 → 재정악화 → 저성장 → 실업확대의 악순환



▪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던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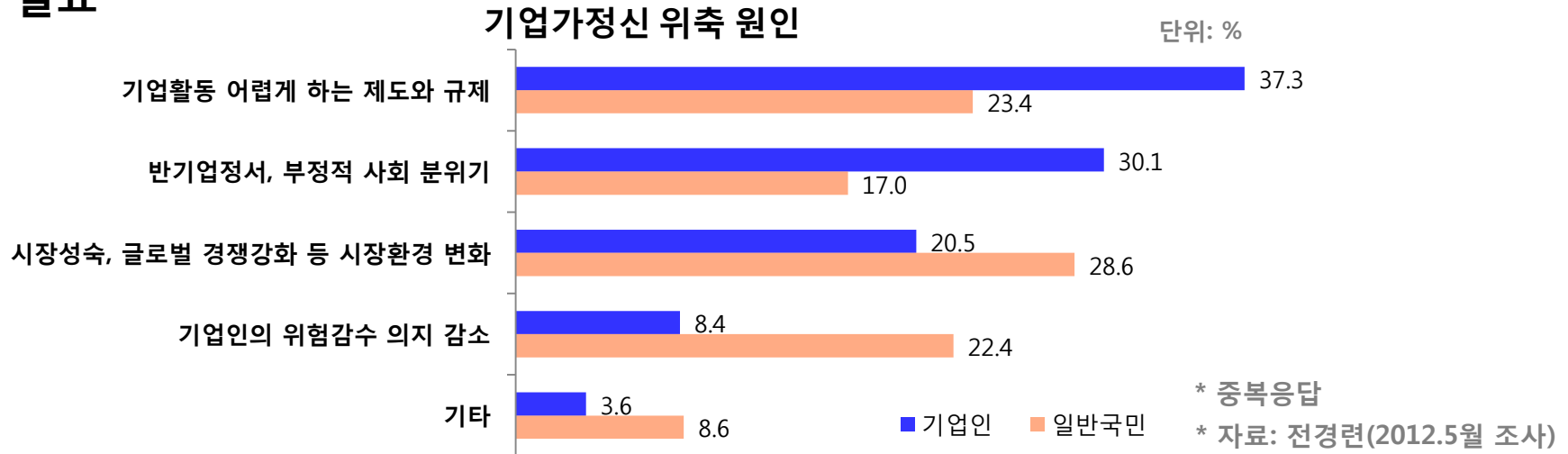
* 자료: 전경련(2012.5월 조사)



* 중복응답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 제고 필요

■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①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 조성
과 ② 반기업정서 완화 필요



■ 특히,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문화적 경쟁력 확보가 경제민주화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노사관계의 생산성(53위*), 해고비용(50위), 정치적 불확실성(52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55위), 고령화 부담(52위) 등 국제경쟁력이 낮은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 필요

* 2012년 IMD 세계경쟁력 순위 평가(59개국)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문화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

Part II: SK의 New Capitalism 전략

- 1 MRO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 2 사회적 기업 직접 설립 및 지원
- 3 사회적 기업 MBA를 통한 인재 육성
- 4 Idea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
- 5 글로벌 협력을 통한 선진 경험의 학습

SK의 New Capitalism 전략

청년 실업, 양극화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한 고려 사항임



- SK는 Hynix를 인수하여 국내 전자 산업 발전 및 인력 양성에 기여
 - 전년 대비 20%가 늘어난 4조2000억 원 투자
 - 2012년 대졸 공채 약 500여명 채용(상반기 172명/하반기 300여명 예정)
 - 매년 고졸 정규직 1,000여명 채용

* SK그룹은 올해 7,500명 (고졸자 2,000명 포함) 채용 예정



- 특히, 기업 활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사회문제를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시도
 - 기업 최초로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나눔재단 출범 (2006년)
 - 기업 최초로 '사회적 기업 MBA 프로그램' 개설(2012년)
 - 현재까지 72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설립 지원

1

MRO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행복나래”는 ‘지속가능한 행복추구’라는 SK그룹의 경영철학에 입각해 설립한 국내 최대 사회적 기업으로, SK 계열사의 MRO* 업체인 ‘舊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ng



■ 민간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사회적 기업 운용에 적용

- 대기업의 경영모델을 결합시킨 연 매출 1,2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
- 연간 수익금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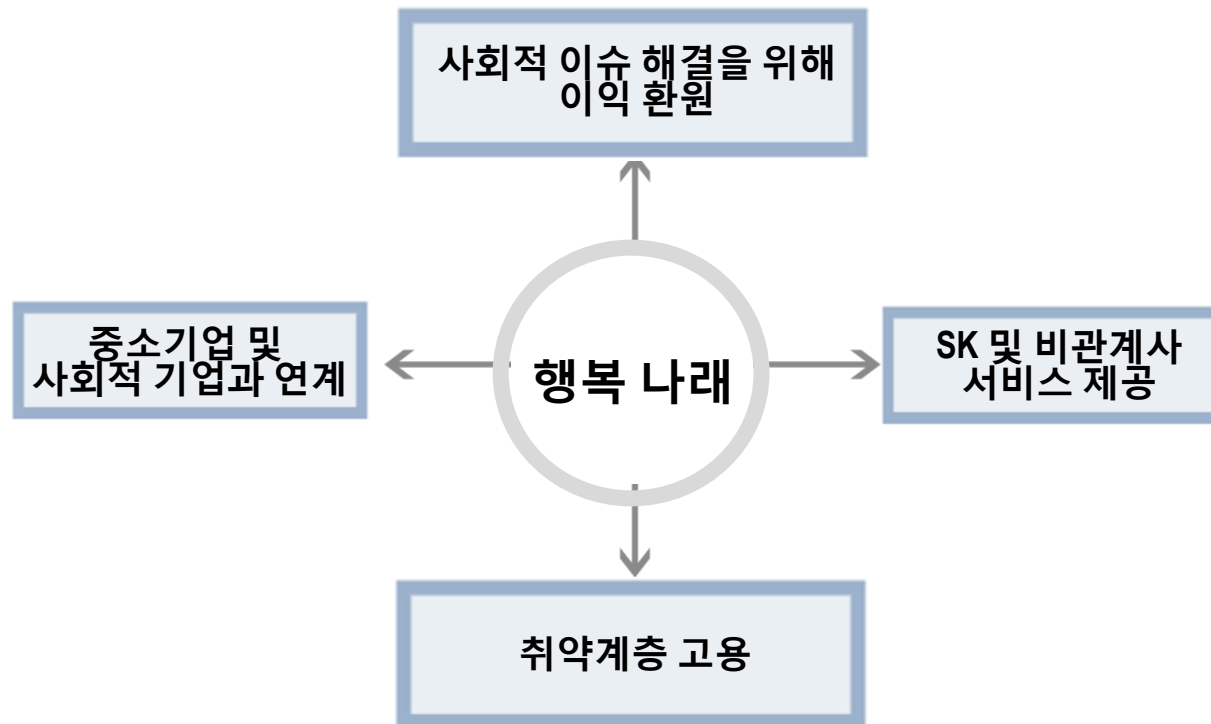
- 협력업체 선정 시, 사회적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구매 우선순위를 높이는 제도를 통해 사회적 기업 지원
-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30일 먼저 현금 선결제 시스템 적용

■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의 큰 형님

- SK의 경영 노하우를 접목, 회계, 재무, 법무, 마케팅 등 사회적 기업에 부족한 경영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지원

향후 SK는 기업 역량을 활용한 ‘동반성장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통해 사회적기업 확산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계속할 예정

“행복나래”는 사회적 책임구매는 물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며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



2012년 사회적 기업 협력업체를 50여 곳으로 확대 및
편부모 가정, 고령자, 해외 이민자, 여성 등 취약 계층 신규 채용 진행

사회적 기업 직접 설립 및 지원

SK는 72개의 사회적 기업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약 1,5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음



직접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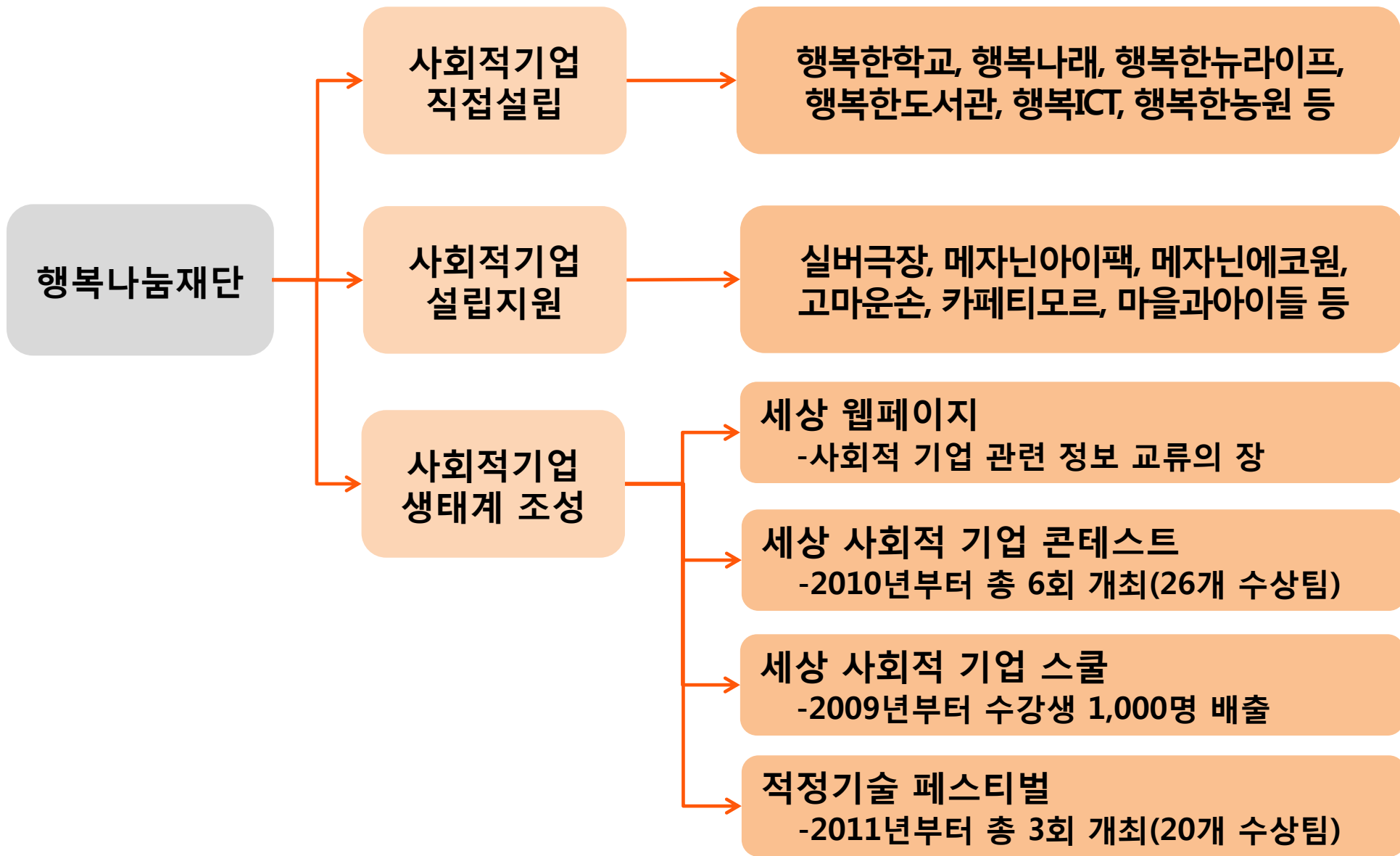
- 2012년 현재 총 145억 원을 출연하여 10개의 사회적 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700여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
-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SK그룹 관계사 고유 역량(SK Biz R&C 연계 Model)을 활용



설립 지원

- 2012년 현재 총 199억 원을 출연하여 총 8개 분야 62개 설립을 지원 및 약 800여명의 고용창출에 기여
- 외부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영세성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SK가 보유한 경영노하우, 시스템 등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

행복나눔재단



[사례 1] 행복한 학교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SK의 재원과 경영노하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재원 및 행정지원역량이 결합된 다자간 협력모델임



사회적 가치 및 성과

- 공교육의 기능 보완 및 교육격차 해소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500여명의 신규 강사 일자리 제공 및 약 15,000여명 수강생 대상 운영

[사례 2] 행복 도시락

결식 이웃에게 무료도시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인력채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늘릴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2006년)

1일 배달되는 도시락 수 **약 12,000 개**

430여명 일자리 제공 (전국 29개 기업, 2012년 현재)



[사례 3] 행복한뉴라이프

출소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커피 전문점과 세탁 공장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함

- 사회적 기업의 목표는 생활고로 인한 재범율을 낮추고 범죄의 악순환을 끊는 것
- 법무부(행정 및 우선 구매), 법무공단(사업인프라 및 출소자 관리), 법무부 후원회(지역마케팅)와 함께 운영
- 2011년 대통령상 수상

‘행복한 커피향기’



- 경기도 화성에 문을 연 커피전문점(2011. 10)
- 바리스타 전문교육을 받은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

‘행복 클리닝센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에서 문을 연 출소자 고용형 세탁공장(2012. 4)
- 세탁기술교육을 통해 출소자의 자활을 지원

사회적 기업 MBA를 통한 인재 육성

- 사회적 기업이 사회 혁신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끊임 없이 나타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SK는 KAIST 경영대학에서 '사회적 기업 MBA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엘리트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자 함
 - '13년부터 매년 25명 내외 선발 예정
 - 80%는 대기업 등 민간 영역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20%는 NGO, 공공기관 근무자
 - Ashoka, UN 등 해외 선진 프로그램과의 연계 추진
- 유능한 사회적 기업가 육성에 반드시 대학교육(MBA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님
 - SK는 'SK 세상 사회적 기업 스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층(연령, 학력)에서 유능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

Idea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

-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창의적인 인재와 투자자금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함

-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우수인재 유입 → 더 큰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의 선순환

-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필요

-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투자자에 대한 tax credit 등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함

- 이를 위해 SK경영경제연구소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법제도 개선 방향을 연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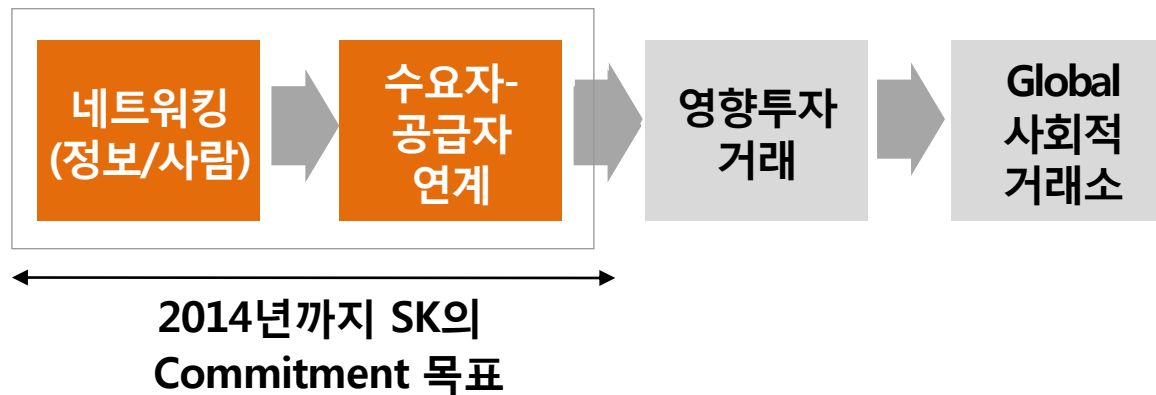
글로벌 협력을 통한 선진 경험의 학습

- 사회적 기업 분야 해외 선진 기관의 투자 전략 및 사회적 성과 측정 방법 벤치마킹 추진
 - 록펠러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IRIS(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 System) 등 선진 사회적 성과 보고 및 측정 방법 벤치마킹 추진
- Beijing Forum, World Economic Forum 등 사회적 기업 세션에 적극 참여
 - 록펠러 재단, WEF, 슈왑 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회적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발전 기대
- UNGC와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Global Action Hub”추진 중
 - Global Action Hub는 사회적 기업가와 투자자를 연결시키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4년까지 구축 예정

Global Action Hub

- Global Action Hub는 사회적 기업가와 투자자를 연계하는 IT 플랫폼으로 UNGC와 함께 2014년 말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

<“Global Action Hub” 구축 범위 및 지향점>



- 사회적 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갖추어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영향투자자”가 직접 참여하고, 교류하며 실질적인 “Action”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Online Community

[언론 보도] SK의 글로벌 협력 활동에 대한 반응

“

반기문 총장
"사회적 기업 포털 아이디어 굿" ”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Meeting (Aug. 14, 201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 6월 브라질 ‘리우+20 회의’에서 사회적기업 확장을 위한 모델로 제안한 글로벌 액션 허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IT플랫폼인 글로벌 액션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 8월 15일자 기사)



Part Ⅲ: 결론

- SK는 고용 정체,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유치가 가장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함
 - 벤처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창의적 인재도 유입됨
 -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tax credit'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SK의 New Capitalism 전략임

“인간위주의 경영” SKMS

Thank you

